

기아차 파업 출구 안보인다

광주공장 노사 16차례 협상...진전 '제로' 한달새 1천억 손실...협력업체 252억 피해 시민들 "본사·노조 중앙기구 휘둘리지 말라" 호소

지난 18일로 부분파업 한달을 넘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파업손실이 1천억원을 웃돌면서 지역경제 파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6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시민들은 기아차 노사 양측의 경직된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회사측은 정몽구 회장의 판단에만 기밀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광주공장에서 15·16차 교섭

을 잇따라 가졌으나, 현대차와의 임금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요 쟁점에 관한 별다른 합의없이 종료됐다. 노조측은 21일 소하리 공장에서 17차 교섭을 가진 뒤 회사측의 양보가 없을 경우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2일 추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10만6천221원 인상과 성과급 300% 지급 외에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선임 ▲노동수수 징계위원회 구성 ▲해외공장 신설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파행에 따라 손실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20일 "지난 7월

18일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이후 한달만인 이날 18일 생산차질 6천800여대, 매출손실 1천5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광주공장 협력업체 247개(1차 32개, 2차 135개, 3차 80개)의 피해규모도 252억원에 달한다. 기아차 전체로는 2만2천여대의 생산차질과 3천300억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환율하락, 고유가예다 이번 파업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4분기 1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21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9개월만이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3년 8천124억원에서 지난해 74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71억원으로 줄었다. 덩달아 영업이익률도 2003년 6.3%에서 올 상반기에는 0.2%로 곤두박질했다.

올 상반기에 거둔 생산 차량 한 대당 영업이익은 2만9천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기아차가 판매한 차량은

58만6천289대로, 이를 통해 17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6.0%인 것을 감안하면 기아차는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내수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 실적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16년째 한해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되는 파업의 고리를 끊으려면 광주공장 노조가 기아차 본사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회사측도 책임있는 판단을 통해 하루빨리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산업단지내 A협력업체 대표는 "1·2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부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광주공장의 파업 때문에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파업철폐를 촉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의 한 성인 오락실에서 30대 두 명이 최근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성인 오락 게임 '바다이야기'에 몰두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의 개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게이트화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바다이야기' 게이트로 번지나

한나라 "특혜 의혹...국정조사" 靑 "조카 무관...엄정수사"

檢, 대표 2명 구속...유사업체 무더기 사법처리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씨의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노지원씨 연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및 여권 인사 연루설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7면>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와의 간담회에서 노지원씨의 '바다이야기' 관

여 의혹과 관련 "바다이야기와 조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오락 게임 인허가 문제를 참여정부 최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당내에 '바다이야기 조사특위'를 구성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0일 '바다이야기'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이사 차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인 대표이사 최모(34)씨를 사행행위규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사행성 게임인 '황금삼'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47)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고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미국산 쌀서 유전자 변형물질 검출

농림부 "한국엔 수입 안돼" ...日, 수입 전면 금지

미국산 시판용 쌀의 샘플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물질이 검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클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산 시판용 쌀의 샘플 중 극히 일부에서 무허가 유전자 변형물질이 발견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한스 장관은 독일 바이에르사의 조사 결과, LLRICE 601로 불리는 이 무허가 유전자 변형물질을 함유한 쌀이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무허가 유전자 변형 쌀은 아칸소주와 미주리주 보관창고에서 추출해낸

시판용 쌀 샘플을 바이에르사가 조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문제의 쌀이 한국에는 수입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칼로스 쌀과는 다른 품종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가운데 쌀알이 긴 품종에서 유전자 변형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이 품종 쌀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 품종 쌀에 대한 수입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LRICE 601 쌀은 제조제에 견딜 수 있는 박테리아성 DNA를 보유한 품종으로 바이에르사가 1998-2001년 개발 시험을 했으나 미국 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한채 개발을 중단했다.

하지만 바이에르사의 조사 결과, 이 쌀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바이에르사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다른 2종의 유전자 변형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농무부측은 강조했다.

이반에 발견된 LLRICE 601 쌀은 2005년에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배지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 당국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무허가 유전자 변형 쌀이 발견됨에 미국 쌀 시판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쌀의 수출에 부정적 여파가 우려된다

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장성아카데미 500회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민 교육강좌의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은 '장성 21세기 아카데미'가 오는 24일로 500회를 맞는다.

지난 1995년 9월 15일 이견영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장의 첫 강의로 시작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매주 금요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열렸다. 지금까지 연인원 수강생만 25만여명을 넘어섰다.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 500회를 맞아 오는 24일 오후 4시 '주식회사 장성군'의 자자인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을 초청, 기념특강을 개최하고 아카데미를 창설한 김홍식 전 군수와 오동길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또 장성 아카데미상을 제정하는 등 500회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된다.

/장성=고재범기자 jbgo@

임시국회 오늘 개최

8월 임시국회가 9일간 회기로 21일 개최된다.

9월 정기국회 직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재산세·거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 작년도 결산안을 중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갖고 22일부터 일주일간 상임위 활동과 결산 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5일 실시된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社告

제19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김방희 소장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는 법'

24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4일 오후 5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19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한눈에 보이는 경제' '굿모닝 서울' 등을 진행중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사진)이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강연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일시 : 8월 24일(목) 오후 5시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는 법
- 강사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6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공정하고 친절함 은행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일본규슈역사문화탐방단모집
광주일보사 (062)220-0541

깨끗하고 안전한 세계 최고급 유아식!

남양유업의 미풍을 최고 지켜가는 유아이자 학부모입니다

남양유업의 미풍을 최고 지켜가는 유아이자 학부모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세계 최고급 유아식을 제공하는 남양유업의 미풍을 최고 지켜가는 유아이자 학부모입니다. 남양유업의 미풍을 최고 지켜가는 유아이자 학부모입니다.